

또 드러난 5·18 계엄군 잔혹 행위...시민 눈 담뱃불로 지졌다

5·18진상조사위 상반기 활동 보고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체포된 민간인의 눈을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16명과 교수 87명, 언론인 256명이 해직된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0일 '2023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내고 올해 6월까지의 조사 활동 사항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사건과 138개의 신청사건중 75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59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남대학교 진압작전 과정에서 연행된 민간인들은 옛 광주교도소 외역창고에 구금당했고, 이 창고 안에서 구금자들에게 대한 가혹행위가 수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대 진압작전에서 연행...옛 광주교도소 창고에 구금·구타 부산·강원 등 전국서 교사 16명·교수 87명·언론인 256명 해직

경계근무를 담당하는 계엄군들과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들이 구금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를 반복했다. 체포된 민간인이 눈동자를 굴렸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눈을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의 가혹행위는 자신들이 지키던 저지선이 뚫린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세아자동차에서 빼낸 자동차와 장갑차, 군용트럭 등을 몰고 온 시민군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대 정문을 지키던 계엄군을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신안동 굴다리 부근까지 시위대를 밀어내면서 발포를 했다.

진상조사위는 5·18 전후 해직자(교수, 교사, 경찰관, 언론인 4개 직군)의 숫자도 확정했다. 5·18 관련 해직 교사들은 광주와 전주 일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부산·강원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현재까지 16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명은 1981년 7월 대전 아람회사건 관련자다. 공립학교 교사는 1명, 사립학교 교사는 15명이었다. 교수 해직자는 모두 87명이다. 이 가운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광주사태' 관련으로 예비

검속돼 재판에 회부돼 해직된 교수는 19명이다. 1980년 4월 24일 재경대학교교수 361명의 성명, 1980년 5월 15일 지식인 134인의 시국선언 등 '계엄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시국강연에 참여하거나 주도한 혐의로 해직된 교수는 68명이다. 언론인의 경우 기자회견 김태홍 회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직전에 예비검속되거나 수배되었다가 검거·기소되면서 해직됐다. 이들은 '계엄사가 보도검열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5월 20일부터 신문, 방송, 통신 등 모든 언론이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의'하는 등 저항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1980년 7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인 정화과정이 시작됐고 보안사가 정화 대상 언론인 명단을 작성했다. 보안사는 제작거부, 반정부, 부조리 등 사유를 적시해 각 언론사에 명단을 보내면서, 언론사의 자체 정화

형식으로 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정치인(김대중, 김영삼)과 가깝거나 반정부, 제작거부 등을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은 현재 256명으로 확인됐다. 시위진압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의원면직된 안병화 도경국장 등 전남도경간부도 13명에 달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보고서는 2023년 12월 진상조사위 조사완료 기간이 끝나기 전 하반기 보고서(중간보고서)만 남겨두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6월까지 최종 국가보고서를 제작한다. 하지만 아직 이번 상반기 보고서에도 남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개월 만에 미완의 과제들을 모두 규명해 최종국가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상사화 적시는 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20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상사화가 만개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끊이지 않네

광주·전남 지난해 25건...통학 보도 설치 안된 곳도 많아

광주·전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일부에는 통학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건에 달한다. 한 달에 두 건 꼴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광주지역 스쿨존 사고는 2018년 8건에서 2019년 1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13건(2020년)→21건(2021)→14건(2022)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16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여전히 두 자릿수 사고를 기록했다. 5년간 교통사고로 광주에서는 80명의 어린이가 다쳤고, 전남에서

는 74명이 부상을 당했다. 숨진 어린이는 없었다. 광주·전남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통학로가 완비되지 않은 게 꼽힌다. 전남 지역은 스쿨존 통학로 보도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환(대구 달서구 병) 의원이 확보한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 설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초등학교 총 455개교 가운데 189개교(41.5%)가 일부만 설치됐고, 81개교(17.8%)는 미설치됐다. 40.7%(185개교)만이 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설치가 완료된 상태다. 전남의 스쿨존 통학로 보도 설치율은 최하위인 경북(18.3%) 다음이었다. 광주는 156개교 중 117개교(75.0%)가 설치됐으며 34개교(41.5%)가 일부 설치, 5개교(17.8%)가 미설치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나주동학사죄비' 나주역 역사공원에 설치

일본인들의 '사죄'가 담긴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사죄비·사진)'가 나주역 역사공원 내에 세워졌다. 20일 '나주 동학농민혁명 사죄비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나주시 죽림동 나주역 역사공원에 사죄비가 설치됐다. 사죄비는 한일동학기행에 참여한 일본 시민들이 주도했고 나주 지역민이 모금운동에 참여해 세웠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나주 동학군에 대한 일본군의 만행을 사죄하는 뜻이 담겼다.

사죄비에는 '나주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을 기리고자 일본 시민들이 먼저 사죄의 마음을 담은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았다. 한국 시민과 나주시의 협력으로 비를 세우게 됐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같은 내용이 뒷면에 일본어로도 새겨졌다. 사죄비 제작식은 나주 시민의 날(10월 30일)에 맞춰 열릴 예정이다. 제작식에는 일본인 동학기행 참가자들이 참여한다. 한편 나주는 1985년 1월 5일부터 35일간 일본군 후비 보병 제19대대에 의해 대대적인 동학군



학살이 자행된 장소다. 한일동학기행 참가자들은 2006년부터 나주를 방문해 나주의 동학 역사를 기려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북구 22일 '구민의 날' 행사

광주시 북구가 '구민의 날'을 맞아 22일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북구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북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오후 5시 45분부터 45분간 진행되며 기념식 종료 후에는 북구민 가을밤 음악회가 이어진다. 기념식에서는 북구 마스코트 '부기&부부'가 최초 공개되며 '북구인상 시상'과 '타북 퍼포먼스' 등도 진행된다. 음악회에서는 가수 정동원과 남승민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비스타, 엘리스 댄스팀, 가수 황철호, 플루티스트 나리의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광주 북구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4번째인 북구민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0년 개칭 40주년을 맞아 북구 설치령 공포일(1979년 9월 26일)을 기념하고자 지정된 것으로 매년 지역주민 화합과 애환심 고취를 위해 열리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사회협회의심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대기환경분야